

정기공동대표자회의 순서

◆ 강연회

제목 : “2008년 통일운동의 방향”

강사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의장)

◆ 본 회의

■ 1 부

- 인사말
- 내빈소개
- 축사 1. 6.15남측위원회
- 축사 2. 6.15북측위원회
-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 축사 4.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및 사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심의안건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07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 안건 3 : 2007년 결산 심의의 건
 - 안건 4 :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 안건 5 : 2008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안건 6 : 2008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서기록 발표
- <6.15민족통일상> 수여식
- 폐회 선언
- 대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글 심는 순서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 3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 4

6.15경기본부 규약 / 6

축사 1. 6.15남측위원회 / 10

축사 2. 6.15북측위원회 / 12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 13

축사 4.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 14

상임대표 인사말씀 / 15

6.15경기본부 임원 및 체계 / 16

2007년 사업일지 / 18

안건 심의

-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24
- ② 2007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 26
- ③ 2007년 결산 심의의 건 / 33, 별지1.
- ④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 34, 별지2.
- ⑤ 2008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35
- ⑥ 2008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44, 별지3.

참고1. 10.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45

참고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 / 48

참고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 50

참고4. 6.15남측위원회 2008년 사업계획 / 53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15경기본부 발족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

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펼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본부 규약

제정 : 2005. 4. 29

1차 개정 : 2006.3.16

2차 개정 : 2007.3.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 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2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입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제16조(구성과 소집)

- ①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공동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집행위원회 소집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과 소집)

- ①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필요시 공동집행위원장회의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6.15경기본부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집행

제6절 자문기구

제20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2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처

제24조 (사무처)

-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사1. 6.15남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성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와중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깊어갈 즈음에 2008년도 경기본부 총회가 열리게 되어 의미가 더욱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토론과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서로의 현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특히,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벌여 왔고, 경기도내 유관단체들과 협력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한명수 상임대표님과 경기본부 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2007년은 10.4남북정상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봄을 맞이하는 현재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이 기로에 서게 되었고, 이는 곧 남북관계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천적 길을 제시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싸고 다양한 힘들이 각축하는 이 때,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남북이 당사자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우리가 더욱 적극 참여하여 통일 한반도사회가 평화와 인간중시의 참된 선진사회·문명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역류와 혼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통일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의 큰 흐름은 도도하게 민족사의 한복판을 흘러 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민간의 참여공간이 보장되며 민간참여의 양과 질에 따라 통일의 내용과 성격이 좌

우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수 국민대중과의 교감속에서 통일운동을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본부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 낙 청



사2. 6.15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해내외에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하려는 겨레의 자주통일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귀 본부 정기총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귀 본부 총회는 6.15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려는 귀 본부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반통일의 온갖 도전과 역풍을 밀어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마련해온 6.15의 귀중한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고 이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여 조국통일의 기치가 내리워질 수 없으며 민족의 지향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겨레의 가슴속에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단체들 사이의 련대단합을 실현하고 통일 운동을 일상화, 대중화, 전지역화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귀 본부가 앞으로도 민족을 중시하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대세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통일애국활동에 계속 앞장서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 97(2008)년 3월 20일



사3. 6.15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귀본부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총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경기본부 전체임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지난 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6.15통일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기본부와 전체 임원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6.15의 고귀한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고, 계속 빛내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역사적인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2008년 3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축사 4.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오늘 6.15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가족들을 모시고 인사를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애국지사인 김구 선생은 통일에 대한 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애국지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더구나 각박한 현대 문명 속에서 내 것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이 날로 팽배해져 가기만 하고 이산가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우리의 생활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간과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6.15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남과 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진지하게 통일의 방향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일만은 계파도 계층도 없는 민족의 숙원입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심층 깊게 접근하여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먼 후일까지 헛수만 거듭해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통하여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통일 가족 여러분 !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남다른 분입니다.

하나의 국가, 단일민족의 국가로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국력의 신장은 물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 세계를 누비며 웅비해나갈 것입니다.

이 길에 6.15남북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역사의 장에 함께 동참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상임부회장 김 현 탁



상임대표 인사말씀

지난 1년간은 정치적 격변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6.15정신이 훼손된 가운데 총회를 맞게 됨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총회에 임할 뿐 아니라 보다 투철한 각오로 우리의 할 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1차적 사명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나아가 발전이란 미명 하에 소위 한미동맹의 유연성이란 방위개념의 확대를 기여코 저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남북공조에 더욱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실용주의로 국익을 우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남한에 국한된 이론이며 국제사회의 미묘한 상황에서도 남북의 공생 하는 길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잘 될것으로 전망 되지만 남북을 제외한 4개국은 어떤 의미에서 남북분단의 당사국 이고 지배국이였다고 하는 현실은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감 된다고 해도 그것은 통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란 냉혹함에 우리들은 예의 주시하여 민족의 갈 길을 바로 설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모든 백성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 우리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이 시대의 역사적 책무임을 인식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고 하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빌겠습니다

2008. 3. 20

상임대표 한 명수



6.15경기본부 임원 및 체계

■ 고 문 (현재 2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김진춘목사 (매원교회)	13	지원스님 (보련사)
2	김추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14	한성건 (경기도 IT협의회 의장)
3	민경학 (전 전농도연맹의장)	.15	효림스님 (보광사)
4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16	강성중 (국회의원)
5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17	문학진 (국회의원)
6	석달윤 (통일운동가)	18	안민석 (국회의원)
7	안재구 (범민련경기인천연합고문)	19	이기우 (국회의원)
8	윤기석목사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장)	20	이원영 (국회의원)
9	이기형 (시인)	21	최 성 (국회의원)
10	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22	최순영 (경기여성연대고문, 국회의원)
11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23	장문하(경기민언련 상임대표)
12	정춘자 (경기여성연대고문)		

■ 지도위원(현재 1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대표)	8	송재룡 (경희대사회학과교수)
2	김경수 (선문대교양학과교수)	9	이선이 (아주대사회학부교수)
3	김동균 (변호사)	10	임영인신부 (나눔의 집)
4	박공우 (변호사)	11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5	수산스님 (대승원)	12	신종철 (전 경기도의원)
6	김형식(도의원)	13	조복록(도의원)
7	송영주(도의원)		

■ 감사 : 김경희 (수원여성의전화 이사), 박덕순(경기도의회 의원)

■ 상임대표 : 한명수 목사 (백범정신실천거례연합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세계밀알 이사장, 창훈대교회 원로 목사)

■ 참가 단체(현재 39)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상임대표	21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2	6.15 남양주본부	22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3	6.15 성남본부	23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4	6.15 수원본부	24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5	6.15 안산본부	25	민주공무원노조경기본부
6	6.15 안양본부	26	민주노동당경기도당
7	6.15 오산본부	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8	6.15 이천본부	28	범민련경인연합
9	(사)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29	원불교경기인천교구
10	경기경실련	30	인천경기기자협회
11	경기남부총련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12	경기도교회협의회	32	전농경기도연맹
13	경기청년단체협의회	33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14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34	천도교수원교구
15	경기복지시민연대	35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16	경기여성단체연합	36	한국노총경기본부
17	경기여성연대	37	홍사단경기도협의회
18	경기자주여성연대	38	장원철((주) 듀텍홀딩스 대표이사)
19	경기환경운동연합	39	김상희(한일웨딩부페 대표)
20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 운영위원(현재 17인) <운영위원은 이후 더 확대해 나간다>

한명수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양정순 (6.15 남양주본부 운영위원장)
 박희영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 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6.15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 안양본부 상임대표)
 장창원 (6.15 오산본부 공동대표)
 홍건의 (6.15 이천본부 상임대표)
 류경문 (경기남부총련 의장)

홍은숙 (경기청협 의장)
 김용한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유정희 (전교조경기지부 지부장)
 장순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장)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본부 본부장)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회장)



2007.3~2008.2 사업일지

<07년 3월>

- 3월 1~3일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2차 금강산 통일관광
- 3월 05일 6.15남측위원회 21차 운영위회의
- 3월 05일 6.15남측위원회 2007년 정기 공동대표자 회의
- 3월 05일 6.15남측위원회 결성 2주기 기념식
- 3월 0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3월 09일 6.15이천본부 운영위회의
- 3월 14일 6.15경기본부 감사
- 3월 15일 6.15안산본부 공동대표자회의
- 3월 16일 수원시민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
- 3월 17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 3월 17일 6.15경기본부 22차 운영위회의
- 3월 19일 “우리학교” 영화 시사회
- 3월 20일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가
- 3월 21일 6.15남측위원회 2기 1차 운영위회의
- 3월 23일 6.15수원본부 정기 공동대표자회의 참석
- 3월 27일 6.15경기본부 2007 정기 공동대표자회의

<07년 4월>

- 4월 03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개성 나무심기 사업 진행
- 4월 03일 6.15남측위원회 제2기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05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09일 6.15고양본부 준비모임
- 4월 10일 6.15수원본부의 통일시민교실 참석
- 4월 11일 6월 행사 기획단 회의
- 4월 11일 6.15공동위원회 남북개성 실무회담
- 4월 12일 6.15남측위원회 2차 운영위회의

- 4월 1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17일 6.15수원본부의 통일시민교실 참석
- 4월 20일 6.15경기본부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24일 6.15수원본부 통일시민교실 참석
- 4월 25일 6.15남측위원회 워크샵
- 4월 26일 늦봄 문익환목사 시비 건립추진위원회에 상임대표 참여
- 4월 27일 6.15경기본부 23차 운영위원회의
- 4월 29~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회

〈07년 5월〉

- 5월 1일 6.15수원본부의 통일시민교실 참석
- 5월 2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경기한마당” 기획단 회의
- 5월 3일 통일그림그리기 대회 준비 기획단 회의
- 5월 8일 경기통일마라톤 준비 기획단 회의
- 5월 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9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경기한마당” 기획단 회의
- 5월 15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경기한마당” 기획단 회의
- 5월 15일 6.15경기본부 2차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5일 “우리학교” 영화 상영
- 5월 16일 “우리학교” 영화 상영
- 5월 17일 6.15남측위원회 지역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7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7일 6.15경기본부 24차 운영위원회의
- 5월 2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22일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평화 포럼 기획 회의
- 5월 24일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평화 포럼 기획 회의
- 5월 25일 6.15남측위원회 제2기 2차 운영위원회의
- 5월 25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경기한마당” 기획단 회의
- 5월 25일 제2회 임진각-개성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5월 30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경기한마당” 기획단 회의
- 5월 31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07년 6월〉

- 6월 5일 6.15남측위원회 제2기 2차 공동대표자회의
- 6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 파주시청 방문
- 6월 9일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발표 7돌 경기한마당
- 6월 1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평화포럼
- 6월 14일~17일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 6월 27일 6.15남측위원회 긴급 운영위원회의

〈07년 7월〉

- 7월 2일 6.15경기본부 25차 운영위원회의
- 7월 3일 남북공동경작 기획단 회의
- 7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7월 5일 제 2기 이천 평화통일아카데미 지도자과정 5강
- 7월 10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7월 10일 경기도지사 면담
- 7월 11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12일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자 워크샵
- 7월 13일 제2기 이천 평화통일 아카데미 지도자과정 6강 및 졸업식
- 7월 14일 경기통일마라톤 대회 기획단 회의
- 7월 20일 6.15남측위원회 긴급(5차) 운영위원회의
- 7월 25일 통일쌀 나누기경기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 7월 25일 (사)통일농수산 사업단 방문
- 7월 26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26일 백두산상회 방문
- 7월 30일 6.15수원본부 방문
- 7월 30일 6.15성남본부 방문
- 7월 31일 6.15고양본부 준비모임 방문
- 7월 31일 6.15파주본부 준비모임 방문

〈07년 8월〉

- 8월 1일 전교조경기지부 방문
- 8월 1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방문
- 8월 2일 백두산 상회 방문
- 8월 2일 6.15남양주 본부 방문
- 8월 3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8월 5일 파주시 준비모임 주체 면담
- 8월 7일 6.15남측위원회 4차 집행위회의
- 8월 7일 6.15남측위원회 6차 운영위회의
- 8월 8일 경기방송 시사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 8월 9일 6.15경기본부 26차 운영위회의
- 8월 9일 6.15경기본부 통일정세 강연
- 8월 11일 6.15안산본부 통일한마당 참석
- 8월 12일 북한산 물품 판매(매원교회)
- 8월 15일 8.15민족통일대회
- 8월 17일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반대 기자회견
- 8월 18일 북한산 물품 판매(팔달문 통일가요제)
- 8월 21일 통일농수산 사업단 방문
- 8월 22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8월 23일 통일쌀 나누기 경기운동본부 기획단 회의
- 8월 28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8월 28일 전교조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
- 8월 28일 통일교육원 방북 교육 참가
- 8월 30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07년 9월〉

- 9월 4일 윤병일 6.15성남본부 상임공대표 면회
- 9월 4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9월 7일 6.15경기본부 27차 운영위회의
- 9월 9일 통일기원 우리민족 서화전 기획단 회의
- 9월 13일 통일쌀 기획단 회의
- 9월 13일 6.15안양본부 창립기념 강연회
- 9월 14일 통일기원 우리민족 서화전 도예 준비모임
- 9월 18일 6.15남측위원회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19일 6.15안산본부 강연회
- 9월 20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21일 우리민족서화전 점검회의

- 9월 28일 우리민족서화전 오픈식, 전시 시작
- 9월 30일 우리민족서화전 박계리강사 강연(남북미술로 보는 통일)

〈07년 10월〉

- 10월 2일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남측위원회 환송식
- 10월 5일 2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보고 및 토론회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 10월 9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11일 민주노총경기본부 10주년 기념식
- 10월 11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12일 2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보고 강연회 참석
- 10월 12일 6.15경기본부 28차 운영위원회의
- 10월 13일 통일쌀 첫 가을걷이 기념 풍년잔치 행사
- 10월 18일 6.15남측위원회 통일쌀짓기운동본부 회의
- 10월 20일 경기민예총 주최의 “민중가요페스티벌” 참석
- 10월 21일 경기민예총 주최의 “경기학생통일합창제” 참석
- 10월 25일 6.15남측위원회 임시 7차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31일 개성보리이모작으로 개성 방문

〈07년 11월〉

- 11월 3일 6.15안양본부 마라톤 참석
- 11월 6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1월 7일 6.15남측위원회 8차 운영위원회의
- 11월 10일 6.15안산본부 통일장승 다시 세우기 행사 참여
- 11월 14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1월 25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주최의 제2회 경기통일마라톤 참가
- 11월 26일 한명수 상임대표 출판기념회
- 11월 26일 6.15경기본부 29차 운영위원회의
- 1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 11월 29일 안산 통일장승 현장 방문 및 안산문화원 향의 방문
- 11월 30일 통일쌀 나누기 경기운동본부 점검 회의

〈07년 12월〉

- 12월 4일 400만석 대북 쌀지원 법제화 및 통일쌀 복송 기자회견
- 12월 6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2월 13일 6.15경기본부 30차 운영위원회의
- 12월 13일 6.15경기본부 2007년 송년회

〈08년 1월〉

- 1월 26~27일 6.15남측위 실무회담(금강산)

〈08년 2월〉

- 2월 13일 6.15경기본부 31차 운영위원회의
- 2월 13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워크숍
- 2월 15일 6.15고양본부(준)와의 간담회
- 2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의
- 2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자회의
- 2월 25일 6.15안산본부 통일강연회 참석
- 3월 1일 6.15안양본부 3.1절 기념행사 참석
- 3월 5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3월 6일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안건 심의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감사범위 : 2007년 3월 1일 ~ 2008년 2월 29일

감사일시 : 2008년 3월 18일

감사장소 : 경기도의회 박덕순의원 사무실

감사자 : 김경희 감사, 박덕순 감사

적은 수입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지출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안과 대비하여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로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 지출 내역 대신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정형과 예산의 집행정도를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2. 영수증을 받을 때 단가와 수량을 정확히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3. 이후 재정운영을 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할 것과,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15경기본부 2007년도 회계감사보고서

회계기간 : 2007년 3월 1일 ~ 2008년 2월 29일

6.15경기본부의 수입, 지출,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별지 수지계산서 각항 내용과 상위 없음을 이에 인증합니다.

2008년 3월 18일

회계감사 : 김 경 희

박 덕 순



6.15 경기본부 귀중

안건 2. 2007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07년 6.15경기본부 사업 평가안을 심의해주십시오.]

2007년 6.15경기본부 활동 평가(안)

1. 총평

1) 2007년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총평

○ 6.15남측위원회는 11개 부문본부와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평가에 기초하여 지역과 부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 아래 공동대표 200명으로 확대, 지역 및 부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추가 인선 등 운영상의 보완을 해왔다. 또한 남측통일운동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남북공동행사 외에도 6.15기념일 제정 사업, 통일 쌀 짓기 사업, 10.4선언의 의미 토론회 등 국민 대중들이 참여하는 일상사업도 추진하는 성과를 내었다.

○ 그러나 지난 6.15 평양 축전 파행 이후로 6.15남측위원회 내에서는 평가와 인적쇄신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정세의 변화, 통일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2차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 탄생이라는 유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을 상승시켜 낼 마땅한 사업 하나 추진하지 못하면서 6.15 남측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다.

○ 앞으로 6.15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과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결하고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의 대표체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 이행해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2007년 6.15경기본부에 대한 총평

■ 2007년 사업 방향 (2007년 총회 결의사항)

-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민족중시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6.15 공동선언의 전면화, 대중화, 제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여전히 북미관계가 대결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조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 민족의 단합실현을 실천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6.15 경기본부를 보다 확대 강화하고, 민족의 단합실현을 방해하는 6.15 공동선언 훼손 움직임과 세력에 대해서는 6.15 공동위원회답게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
- 6.15 경기본부 내 각 지역과 부문의 6.15 이행사업을 적극화한다.
- 경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도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15 경기본부 2007년 사업에 대한 총평

- 6.15경기본부는 북미 간 2.13합의의 진전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7년은 6.15 공동선언을 보다 전면화, 대중화, 제도화 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6.15공동선언의 전면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을 주제로 각종의 포럼, 토론회, 기념 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금강산과 개성 기행사업, 영화상영회, 서화전, 통일쌀 나누기 사업 등 다양한 대중참여형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들과 함께 6.15 공동선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6.15 기념일 제정사업, 국가보안법 폐지를 활동,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훈련 반대를 위한 여론화 사업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6.15 경기본부는 행사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대중들과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해 나가기 위한 일상사업을 정착시켜내었으며,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법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자기 과제로 인식, 제기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높여낸 성과를 남겼다.

- 그러나 6.15경기본부가 예년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전개한 것에 비해 이를 조직적 성과로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8개 시군본부와 35개 부문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6.15 경기본부를 보다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현재 결속되어 있는 부문과 시군본부가 6.15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공동선언과 10.4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나선다.

2. 2007년 6.15경기본부 활동 평가

1> 조직 강화 확대사업

① 진행사업 및 현황

- 운영위 회의 총 11회 진행. 지난 2월 회의를 제외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성사됨.
-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 총 16회 진행. 경기본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관한 논의와 집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운영됨.
-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총 3회 진행. 정기성을 띠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
- 미조직 시군본부 건설을 위한 간담회 : 고양, 파주지역과의 간담회 진행. 6.15 사업과 조직 건설을 위한 논의의 주체 마련.
 - 고양 : 7월 31일 / 고양본부 준비주체 약식 간담회 이후로 3번 만남, 2월15일 정식 간담회 진행
 - 파주 : 7월 31일 / 파주본부 준비주체 약식 간담회 주제 : 6.15파주본부 준비위 구성 이후로 3번 대화 진행
- 후원회원 모집사업을 통한 39명의 후원회원 확보 (현재 월 18만원 정도의 후원금 확보)
- 경기도 비영리단체 등록

② 평가

■ 성과점

- 운영위 회의와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운영으로 6.15 경기본부 운영의 기본 체계가 안정화 되었으며, 통일정세 및 통일사업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운영위의 논의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위 정세토론회 및 간담회 등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향후 경기본부의 일상적 결정기구인 운영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경기본부의 대중사업(개성 평화의 숲가꾸기 행사)을 통해 CMS 후원회원 모집의 성과를 얻었으며, 미약하나마 경기본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됨과 함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홍보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되고 있다. 향후 경기본부의 보다 넓은 울타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원회 구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미조직 시군지역의 조직건설을 위한 고양지역, 파주지역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15 사업의 의지를 갖는 주체를 마련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지역적 역량이 현재까지는 조직을 건설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나 각종의 사업적 연계를 통해 꾸준히 주체와 조직건설의

역량마련을 위해 경기본부가 방조해 나가야 한다.

■ 개선점 및 이후 과제

○ 집행책임자 연석회의의 정례화, 상하반기 정기 수련회 등 계획했으나 진행되지 못한 조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본부의 소속단위 모두가 경기본부의 사업에 대해 부문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공동집행위원장단 및 사무처의 보좌가 우선되어야 한다. 부문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일사업적 요구가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단합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고 토론과 합의, 집행을 위한 회의구조가 안정화 될 수 있다.

○ 6.15 경기본부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개별인사 영입사업 및 부문단위 가입사업, 지역조직 건설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15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통일운동 조직이기는 하나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기에는 부문단위의 가입 현황이나 시군조직 건설정도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많다. 보다 다양한 세력과 지역이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재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좌초된 신문발행사업에 대해 올해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회의 구조를 벗어나 경기본부의 입장에 맞는 통일정세 해설 및 6.15 사업에 대한 홍보, 소속단위 통일사업에 대한 소통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본부의 결속력을 높이고 확대,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이다.

○ 집행역량, 실무역량, 사업재정마련에 대한 보강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본부 신문발행사업,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소년소녀가장 금강산 기행사업 등 대중적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역량과 경험, 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을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경기본부의 현실적 역량을 잘 타산하여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요구되며, 결의된 사업을 중단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력과 재정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2>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사업

① 진행 사업 및 현황

-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및 6.15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 경기한마당"을 6.15 경기본부와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수원추진위가 함께 진행.
- 6.15 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 평화포럼 (인천경기 기자협회와 공동 주최)
- 6.15 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운동
- 전쟁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등 여론화 사업
-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보리 이모작 사업 시작
 - 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전농경기도연맹과 공동추진. 07년 10월 파종.

- 통일 쌀 나누기 경기운동본부 결성 및 활동 (총 14,659,769원 모금, 80kg기준 89가마 북에 전달)
- “우리학교” 영화 상영회 (전교조 경기본부와 공동 주최)
- “통일기원 우리민족 서화전” 개최 (민예총 경기지회와 공동 주최)
- 통일마라톤대회, 관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통한 대규모의 대중참여형 방북사업 등 계획했으나 집행력, 재정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음.

② 평가

■ 성과점

- 2007년은 6.15 경기본부 결성 이후 가장 활발하게 대중사업을 펼쳐왔던 해였다. 행사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경기도민들과 함께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해 나가기 위한 일상사업을 만들어 낼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통일사업을 전개해왔던 한 해였으며, 통일쌀 나누기 사업,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보리 이모작 사업 등 소속단위와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상적 교류협력사업을 정착시켜 낸 성과가 크다.
- 또한 우리학교 영화 상영회, 통일기원 우리민족 서화전 등은 전교조 경기지부, 민예총 경기지회 등 경기본부의 소속조직들이 경기본부와 함께 공동주최가 되어 대중적으로 전개한 사업으로서, 부문조직들이 자기 조직의 특성을 살려 통일사업을 적극화 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6.15 지지 이행사업을 대중화하고 경기본부의 결속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운동을 비롯하여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 통일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적 역할 모색을 위한 포럼과 TV토론회 등 대중 여론화사업 또한 활발히 전개했다. 이는 통일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통일의 장애물이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이로운 법, 제도의 정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서 보조자가 아닌 통일의 주체로서 경기본부의 정치적 역할을 높여낸 사업이었다.
- 민관 협력적 관계가 완비되지 못한 조건에서 관의 사업은 행세식으로 그쳐버리고, 경기본부의 사업이 보다 규모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기본부가 벌여낸 모든 사업에서 관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과정에서 경기도 교류협력부서와의 협의적 관계를 만들어 낸 성과가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관을 견인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개선점 및 이후 과제

-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경기본부 사업으로 안착화된 성과는 있으나, 홍보부족, 집행일꾼의 부족으로 인해 보다 규모있는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

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경기본부 자체의 홍보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언론사, 방송사들과의 적극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경기본부의 통일사업이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o 부문조직과 시군본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6.15 기념행사, 통일 쌀 나누기 사업 등 대중적으로 전개된 사업은 대부분 부문과 시군본부가 자기 지역과 자기 대중을 상대로 잘 조직했던 사업이었다. 경기본부는 정책적 역할과 소속단위에 대한 방조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적인 사업은 부문조직과 시군본부가 주체가 되어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o 10.4 정상선언 지지 이행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구체적 지침서인 10.4선언의 탄생이라는 민족적 경사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일정에 밀려 이를 대중적으로 지지 이행해 나가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다. 2008년 사업속에서 10.4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근거해 경기본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일교육사업

① 진행사업 및 현황

o 6.15 이천본부 2기 평화통일 아카데미 지도자과정 진행

- 1강 : 5월 31일 /<통일문제의 인식과 출발점>[강사: 한명수(6.15경기본부 상임대표)]
- 2강 : 6월 7일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해법>[강사: 김삼석(군사평론가)]
- 3강 : 6월 21일 /<현시기 동북아정세와 한반도>[강사: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4강 : 6월 28일 /<북한공연예술과 남북문화교류>[강사: 이영미(연극평론가)]
- 5강 : 7월 5일 /<6.15시대의 민족관>[강사: 민 경우(통일뉴스 객원기자)]
- 6강 : 7월 12일 /<남북경제공동체의 전망>[강사: 임황용(주)sj테크실장]
- 7강 : 7월 19일 /<통일을위한 우리의 과제와 전망>[강사: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
- 졸업여행 : 8월 31 ~ 9월 1일 금강산 관광

o 6.15 경기본부 정기 통일강연회 - 8월 9일 한차례 진행

- 강연주제 : 급변하는 통일정세와 6.15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강사 : 민 경우(통일뉴스 객원 기자)

② 평가

■ 성과점

o 이천에서의 통일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2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06년에 이어 이천의 통일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성과는 08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다만, 대상(수강생)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을 전제로 교육의 내용을 세련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 개선점 및 이후 과제

o 통일교육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해 기획했던 경기본부의 정기통일강연회는 8월 한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수원이라는 한정된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 경기도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부문과 지역이 자기 대중의 요구와 수위에 맞는 내용과 방식으로 통일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본부가 독려하고 방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조직 지역 또는 자체 역량으로 통일교육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부문이나 시군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4> 연대 협력사업

① 진행사업 및 현황

- o 개성 평화의 숲가꾸기 사업
 - 4월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50여명 참가
 - 4월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70여명 참가

② 평가

- o 연대사업이자 경기본부의 대중조직사업이었던 “개성 평화의 숲 가꾸기 사업”은 적은비용으로 방북하여 동포에 민족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으나 주최측(민화련)의 문제로 인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한차례 진행하였으나 경기본부의 후원회원 조직과 경기본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사업으로서, 개성관광이 열린 조건이므로 이후 이러한 형태를 활용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 o 경기도 내 통일교육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경기도협의회 등 경기도 내 통일유관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와의 사업을 전면화하는데 있어서나 보다 규모 있게 경기본부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통일유관단체들과의 협조관계, 협력관계를 적극화하는 것은 경기본부의 이후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안건 3. 2007년 결산 심의의 건 [별지 참고]

[주문사항 : 2007년 결산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안건 4.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주문사항 : 2008년 6.15경기본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2008년 6.15경기본부 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임원추천안〉

임원	이름	소속	비고
상임대표(1명)	한명수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사(2명)	박덕순	경기도의회 도의원	
	양홍관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운영위원(17명)	양정순	6.15남양주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노세극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장창원	6.15오산본부 상임공동대표	
	홍건의	6.15이천본부 상임대표	
	홍은숙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대표자 변경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대표자 변경
	유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지회장	
	이화수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김용한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이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신임
류경문	경기남부총련 의장	대표자 변경	
장순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대표자 변경	

안건 5. 2008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08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08년 사업계획(안)

1. 2008년 통일정세의 몇 가지 특징

○ 2.13 합의 2단계 국면의 해결이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의 지연으로 인해 지금은 다소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나, 미 대선 전 부시정부가 일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2단계 합의 이행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논의 단계인 북-미 3단계 국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는 남측에서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다만,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드러나듯, 상호주의와 북의 개혁개방을 기본으로 남북관계를 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판단했을 때, 남측에서의 대중적 통일운동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안정기까지는 평화 통일 정세의 후퇴현상이 두드러질 수는 있으나, 북미관계의 진전 전망과 10.4선언이후 체계화되어가는 남북관계 전망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또한 평화 통일의 정세를 크게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10.4선언을 근거로 하여 관이 주도하는 교류협력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권초기 분위기는 다소 냉각될 우려가 있으나, 10.4선언의 합의를 무로 돌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선언에서 합의하고 있는 6.15 8돌 기념행사 및 기념일 제정관련 사업, 북경올림픽 응원단 사업, 각종의 경협사업 등 그동안 민간진영에서 벌여왔던 통일사업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6.15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찾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 10.4선언의 지지 이행의 분위기는 난관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각종의 교류협력사업을 기본으로 남북관계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 문화 분야의 대규모 교류협력 사업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에서도 작년과 다르게 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구상, 추진중에 있다.

다만, 10.4선언 이행이 관 주도의 형식적 사업으로만 추진되었을 때, 정세발전에 상응하는 남측 내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켜내는 데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민관 협력적 관계를 높이고 대중참여형 통일운동을 적극 개발 추진하는 것이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2. 사업방향

■ 2008년 6.15 경기본부 전체 방향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6.15 경기본부를 확대 강화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자!”

■ 사업 방향

- ①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의 대중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② 10.4 합의에 근거하여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과 6.15 선언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력을 높여낸다.
- ③ 대중참여형 통일운동과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도민이 함께 하는 일상적 통일운동의 분위기를 높여낸다.
- ④ 6.15 공동위원회의 대중적 강화를 목표로 6.15 남측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시군본부 및 부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본부가 도 본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 ⑤ 경기본부를 강화 확대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 ⑥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통일정책을 개발,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 ⑦ 언론 활용을 통해 6.15 경기본부의 대중적 위상을 높여나간다.

3. 사업계획

1]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지지 이행 사업

■ 사업 목표

-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지지 이행사업을 경기도민 참여형 대중운동으로 성장, 발전시켜 낸다.
-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통일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민관 공동의 통일운동 시대를 열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의 장애물이 되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기, 여론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제도화 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써 공동위원회의 정치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높여낸다.

■ 주요사업

1> 정책 사업 및 여론화 사업

- ① 상하반기 각 1회씩 토론회 개최
 - 경기도내 통일유관단체 또는 경기본부의 소속단체와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 6.15 8돌, 10.4 1돌에 맞추어 의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통일을 가로 막는 제반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모색,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 ② 10.4선언 홍보 책자 발간
 - 10.4선언에 대한 안내, 해설 책자를 제작하여 경기도 내 각 단체 및 학교, 기관 배포하고 10.4선언의 대중화에 활용한다.
 - 경기 시사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책자 형태로 발간한다.
- ③ 각종 반 6.15 행위 및 세력에 대한 대응 사업
 -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거나 반하는 행위 및 세력에 대한 규탄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벌여 낸다.
 -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기고글 혹은 신문광고 등을 통한 입장발표 등 여론화 사업을 적극 화한다.
- ④ 법, 제도 정비를 위한 사업
 - 6.15 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사업 : 남측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되, 작년과 같은 인 사들의 선언적 형태를 넘어 보다 대중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반통일 법, 제도 개선 운동 : 통일의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각종 군사훈련 반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2> 6.15공동선언 이행 및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사업

① 통일 쌀 나누기 사업

- 지난 해 첫발을 떤 통일 쌀 나누기 운동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도 내 각종 언론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농활, 각종 경작행사의 다양화, 도시-농촌 자매결연사업 등 모금 후원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참여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②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

- 동포애, 민족애를 높이고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적극화 한다.
- 시군본부 및 부문 본부의 대중사업으로 추진하되 개성관광의 경우 정기성을 띠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격월 1회)
- “000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개성기행”의 형식으로 구체적 대중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지지 이행의 분위기를 기층 대중속에서부터 높여내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경기본부에서는 미조직 시군 및 미 가입 부문의 조직건설사업, 가입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경기본부에 대한 홍보와 후원인 모집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③ 아리랑관람단 모집 사업

- 북의 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관람이 올해도 진행될 경우, 대규모 모집사업을 진행한다.

④ 경기 청소년 통일예술제

- 6.15 공동선언 발표 8돌을 기념하여, “통일”을 주제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사업을 진행한다.
- 교육청 및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추진한다.

⑤ 제2회 경기 학생 통일 합창 제전

-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경연대회로 진행하되, 10.4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한다.
- 지난 해 민예총 경기지회에서 진행했던 통일합창제 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⑥ 10.4 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남북 그림전시회

- 지난 해 민예총화 경기본부가 함께 진행했던 “우리민족 서화전”을 보다 규모 있게 진행한다.

- 남북 미술작품을 공동으로 전시하되, 가능한 북측 예술인들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⑦ 기념사업

-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일, 8.15 광복 63돌 기념일, 10.4선언 발표 1돌 기념일, 2009년 3.1절 9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대중적인 기념행사를 전개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내는 꼭지점이 되도록 한다.

- 경기본부 차원에서는 대중동원식 방식보다는 토론회와 기념식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본부에서 대중들이 참여하는 정치문화행사의 형태로 진행한다.

- 6.15공동선언을 알리는 홍보사업(시내에 현수막 걸기, 단일기 걸기 등)과 부문단체와의 공동사업도 모색해 본다.

- 각 시기마다 6.15 공동선언 제도화를 위한 여론화사업, 홍보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6월 ~ 8월” 기간을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켜낼 집중기간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⑧ 경기통일마라톤 사업

-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2회 진행한 마라톤 사업을 받아 안아 보다 규모 있게 진행한다.

-

2) 조직 확대, 강화 사업

■ 사업 목표

- 경기본부를 확대, 강화하여, 6.15 남측위원회 및 6.15 공동위원회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미조직 시군에 6.15 본부 건설의 주체를 세워내고 조직건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6.15 공동위원회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 시군본부 및 부문 조직과의 결속력을 높여내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사업이 일상적, 대중적으로 영향력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경기본부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어낸다.

■ 주요사업

1> 6.15경기본부 조직 확대 강화 사업

① 운영위원회 사전 토론회, 간담회 추진을 통한 운영위의 책임성, 논의력을 높여나간다.

- 운영위 참여단위의 경기본부 운영과 경기지역에서 6.15 이행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운영위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시기적절하게 병행한다.

② 지역 집행책임자 회의의 안정화, 정례화를 통해 경기본부와 시군본부와의 관계를 높여낸다.

- 경기본부는 시군본부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군단위 모범사업의 전파자 역할을 적극화함으로써 경기본부를 통해 시군단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집행책임자 회의의 안정화, 정례화를 통해 경기본부 사업에 대한 정책논의를 활성화하고 타 시군본부 모범사업에 대한 공유 확산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

③ 미조직 지역 및 부문에 대한 조직가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경기본부 내부에서부터 결합력을 높일 일꾼을 발굴한다.

- 미조직된 시군에 공동위원회 건설을 위한 주체를 세우고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간담회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 각 계층 및 부문의 특성을 살린 동일사업을 개발하여 부문단위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부문단위 가입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낸다.

- 경기본부 소속단위의 인맥을 활용한 개별인사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본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 경기본부 주요사업의 책임단위 및 책임 주체를 세워냄으로써,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고 경기본부 사업에서 책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자들을 발굴해 낸다. (예, 교류협력위원회의 신설과 교류협력 위원장 인선 등)

④ 경기본부 소식지사업을 추진한다.

- 6.15경기본부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통일에 대한 소식과 경기본부의 소식, 입장을 알려낸다.

⑤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기본부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어 낸다.

- 후원회원 확대사업 : 100명, 60만원 이상의 목표를 잡고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2> 6.15남측위원회 강화 사업

① 경기본부의 의견개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 경기본부 운영위에서 남측위원회 사업에 대한 공유, 토론을 활성화한다.

- 6.15 남측위원회가 6.15 공동선언을 단결의 기준으로 확고히 세워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촉구서한, 입장표명 등 공식 회의 이외의 활동)

- 6.15 남측위원회가 통일의 장애물이 되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사업을 적극화 한다.

3] 통일교육사업

■ 사업 목표

- 경기본부의 통일교육 기능을 높여낸다.
- 각 시별 본부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벌여낼 수 있는 교육사업을 적극 개발한다.
- 평화와 통일,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의지를 높여낼 수 있는 사업으로 안착화 시킨다.

■ 주요사업

① 찾아가는 통일학교

-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10.4 선언으로 더욱 넓어진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객관 환경을 알려 내고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한다.
- 지난 시기의 방식인 수원이라는 한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집중강연의 형태가 아닌, 30강 이상의 강의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시군단위와 부문 단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체 및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

② 경기통일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 이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 과정을 계승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미조직 시군단위 조직건설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교류협력사업

■ 사업 목표

-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민관 협력사업의 기초가 되도록 활용하고, 각 해당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주요사업

1> 개성에서의 남북 공동경작사업

① 벼농사 사업

- 원래 하나였던 농업, 통일농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의의를 높여 사업을 추진한다.
- 남북의 농민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남북의 통일을 위해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6.15경기본부와 전농경기도연맹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 08년을 시작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경기본부의 방북사업 형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② 보리 2모작 사업

- 07년 시작한 보리농사를 성공적으로 결속짓고 이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 6.15경기본부와 전농경기도연맹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2> 10.4선언 이행을 위한 경기도 과제 남북 공동토론회

- 10. 4선언의 지지 이행에 있어 경기 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큰 만큼, 경기지역의 통일 운동에서의 역할을 보다 높여내고, 경기지역의 특성에 맞게 10.4 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토론회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는 안을 추진한다.

5] 연대사업

■ 사업 목표

- 경기도내 통일유관단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경기본부의 통일사업이 보다 규모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사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등 통일유관단체들과 공동의 사업 제안 및 추진. 관계 형성

4. 시기별 흐름

월 별	주 요 사 업	비 고
3월	- 경기본부 총회 및 조직정비	
4월	- 찾아가는 통일학교	

	- 개성 벼농사 - 통일쌀 모금운동 모내기 행사	
5월	- 찾아가는 통일학교	
6월	-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 - 제1회 경기학생 통일예술제 시상식	
7월	- 1차 개성관광 - 찾아가는 통일학교	
8월	- 8.15광복 63주년 기념 강연 - 올림픽응원단 모집	
9월	- 제2회 경기학생통일합창 제전 - 10.4선언 홍보 책자 발간 - 경기통일아카데미 지도자과정 시작	
10월	- 2008년 남북그림전시회 - 10.4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 - 10.4선언 이행을 위한 경기도과제 남북공동토론회 - 통일쌀 모금운동 추수 행사	
11월	- 찾아가는 통일학교	
12월	- 2차 개성관광 - 통일쌀 복송 - 2008년 송년회	
1월	- 2008년 평가	
2월	- 2009년 사업계획 - 3.1절 행사 준비	

안건 6. 2008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별지참고)

[주문사항 : 1. 회비를 조정해 주십시오.
2. 2008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1. 회비 조정 안

1> 회비 조정 배경

지역본부의 예산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부문에 차등을 둔다. 단, 학생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 최소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회비 조정

- 부문 : 월 5만원
- 지역 : 월 2만원
- 경기남부총련 : 월 1만원

3> 공동대표 회비

- 이전과 같이 월 1만원 이상 자율정액제

2. 2008년 예산안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10.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참고2. 615민족공동위원회규약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2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
-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3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

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 4)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5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참고3. 615남측위원회 규약

제정 2006년 2월 15일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



참고4. 6.15남측위 08년 계획

6.15남측위원회 2008년 사업계획(안)

■ 사업 방향

1.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10.4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반과 여론을 형성한다.
2.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민족공동행사 개최와 지역, 부문 등 각 계층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3. 대중 참여형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간다.
4.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튼튼히 세우고 확대해 나간다.

■ 사업 계획

1. 민족대단합 사업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 일시 : 2008년 3월 중
- 장소 : 중국(심양)
- 의제 : 2008년 민족단합과 공동사업 설계

2)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 일시 : 2008년 6월 14일 - 17일
- 장소 : 서울
- 특징
 - 지난해 6.15민족공동행사는 남측에서 개최하기로 당국 간에 합의된 바 있음.
 - 주최는 6.15민족공동위원회로 하되 정부와 정당이 규모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대중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

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이의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함.

3) 북경을림픽 공동 응원단 사업

- 10.4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민간차원에서 대중적으로 이행하고 민족의 협력과 단합을 대외에 나타내는 사업
- 폭넓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민족 단합의 기운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남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3월경에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응원단 조직 및 세부계획 추진.

4) 10.4 정상선언 발표 1주년 기념 공동행사

- 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북측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5) 8.15 민족통일대회

- 광복절을 민족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기념대회 추진
- 본부와 지역, 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6) 통일기행 사업

- 국민들이 쉽게 북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6.15남측위원회가 안내하는 사업
- 관광과 교육, 북측 인사들과의 만남 등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모색하여 대중적 참가를 유도

2. 6.15공동선언 제도화 사업

1)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

- 사업 의의
 - 민족을 협력과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킨 6.15공동선언 발표 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온 민족이 경축하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약속의 문제로 신의를 지키고자 함
 - 6.15공동선언의 지지 기반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내기 위함
- 사업 방향
 - 6.15민족공동기념일 제정 특별위원회를 유지 강화한다.
 - 지난해는 상층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변화된 정세를 감안하여 대중적 의식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진행
 -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 조성
 -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사업 전개
- 사업내용
 - 토론회, 기념우표제작, 홍보물(부채, 버튼 등), 국회, 정부 청원운동 등

2) 냉전시대 법제도 정비 사업

- 국가보안법 개폐 등 6.15시대에 맞게 각종 법제도 정비

3. 정책 홍보사업

1) 6.15남측위원회의 대표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언론 사업의 실행

- 기자회견이나 주요 회의의 언론공개를 중심에 놓고, 관련 현안에 대해 6.15남측위원회의 규모와 이상에 걸 맞는 비중으로 사업 진행
- 대변인실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언론 사업 추진 : 성명, 논평 등

2) 정책사업의 강화와 의제확산

- 전문가 워크숍 등 의제소통의 강화
- 정책 토론회 등 의제 확산
- 이슈 토론회 등 기동성 있는 정책 대응 능력의 강화

4. 조직 안정화 및 확대 사업

1)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체제화 및 소통강화

- 공동대표회의-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등 기구의 골격을 중심으로 논의 중심을 잡아가되, 회의 참석과 회비납부가 원활하도록 행정 서비스를 강화함
- 각급 단위별 워크숍이나 MT 등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소통하는 사업 운용

2) 부문본부와 지역본부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노력 추진

- 부문별로 진행되는 남북해의 공동행사가 6.15남측위원회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함.
- 부문과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방향을 세워감으로서 남측위원회의 응집력 강화와 역할을 높여가야 함.
- 부문과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사업에 대한 조절과 협력을 확대해야 함.
- 부문, 지역의 실무접촉이나 공동행사시 대표나 실무진 파견.

3) 집행력 강화

- 상임운영위원회 체계의 신설에 따른 집행체계의 강화 실현
 - 결정 사항의 집행 보고 체계 구비
- 특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증대 및 실행력 확산
- 사무처의 행정, 홍보 기능의 강화
 - 폭넓은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수반되는 연락 업무의 제고
 - 홍보 기능 강화

4) 안정적 재정운영

- 공동대표 회비 운영의 내실화
- 후원회원 모집활동 시작
 - 5천원, 1만원 후원회원 모집활동
 - 계좌 자동이체 추진
- 특별 후원금 모금활동
 - 남북공동사업 등 특별 후원 사업 조직.
- 협찬 사업 진행